

일부 전남지역 대학생들의 알코올 음료 섭취 실태와 음료의 기호도 조사

정복미¹⁾ · 오은실¹⁾ · 최성미¹⁾ · 차연수[†]

전북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여수대학교 식품영양학과¹⁾

Survey of Alcoholic and Non-alcoholic Beverage Preference in College Students of the Chonnam Area

Bok-Mi Jung,¹⁾ Eun-Sil Oh,¹⁾ Sung-Mi Choi,¹⁾ Youn-Soo Cha[†]

Department of Food Science and Human Nutrition, Chonbuk National University, Chonju, Korea

Department of Food Science and Nutrition,²⁾ Yosun National University, Yosun, Korea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intake of alcoholic and non-alcoholic beverages in college students. Five hundred and eighty seven students age 19 - 30(432 male and 155 female) responded to the beverage consumption survey. Of the students 19.9% were freshman, 42.2% sophomore, 23% junior, and 15% seniors.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 1) Beer and soju were the most commonly consumed alcoholic beverages by the college students. The amount of beverage normally consumed was 3 cans of beer or 1 bottle of soju. 2) There was no age related change in amount of alcoholic beverage consumed, but preference for liquor rather than beer increased with age. 3) Foods most commonly consumed prior to drinking were cooked rice and milk. 4) Following the drinking of alcoholic beverages the most commonly consumed food or beverage was cold water for both males and females. The next most commonly consumed foods were cooked rice, instant noodles, and cola for males ; and cooked rice, milk, and fruit for females. 5) Cola and pear juice were the preferred non-alcoholic beverages for college students. Also popular among students were date juice for males and orange juice for females. Milk and non-cola carbonated beverages were not commonly consumed. This study provides information for the identification of possible alcoholic beverage related public health risks among college students. (Korean J Community Nutrition 6(3) : 290~296, 2001)

KEY WORDS : survey · alcoholic and non-alcoholic beverages · college students.

서 론

기호식품이란 영양적인 면보다는 맛과 향기의 즐거움에 그 역할이 많으며, 기호음료는 알코올성 음료와 비 알코올성 음료로 나누어지고 이들 음료는 우리 식생활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전희정 등 1995). 그러나 복잡하고 다양한 스트레스가 쌓이는 현대사회에서 만성적인 알

코올 섭취 및 과음은 우리의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경제적인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Hoek 등 1992). 최근 크리스찬 사이언스 모니터의 보도에 의하면 미국 대학생들은 술 마시는데 연간 55억 달러를 쓰고 있으며 이 같은 금액은 책, 청량음료, 커피, 주스, 우유 등을 사기 위해 쓰는 총비용보다 많다고 한다. 또한 이들 44%가 폭음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폭음이란 남학생들의 경우는 한자리에서 맥주 5잔 이상을, 여학생은 4잔 이상을 마시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알맞은 비 알코올성 음료섭취는 우리에게 정신적 회복제가 되기도 하나 한번에 과량 섭취하게 되면 칼로리 과잉섭취와 지나친 흥분을 유발할 수 있어 영양적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Kim 등 1994). 미국의 음료시장은 주로 청소년들이 주도하고 있으며 소위 "New Age"라 불리는 음료시

채택일 : 2001년 7월 20일

†Corresponding author : Youn-Soo Cha, Department of Food Science and Human Nutrition, Chonbuk National University, 664-14 Dukjin-dong 1-ga, Chonju, Chonbuk 561-756, Korea
Tel : 063) 270-3822, Fax : 063) 2703854
E-mail : cha8@moak.chonbuk.ac.kr

장은 1995년 2억불을 넘어섰다. 이와 같이 음료시장의 증가추세는 세계적이라 볼 수 있으며 특히 미국과 일본의 경우 음료가 기능성식품으로 작용하여 건강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과일음료가 선두주자로 자리잡고 있다. 미국의 경우 대학생들이 소비자층을 대표하는 중요한 그룹이라고 하였으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식품선호도와 선택 패턴을 조사한 연구는 일부 연구(Khan 1980) 밖에 없으며, 특히 음료섭취실태와 선호도를 조사한 연구는 거의 없다고 보고되고 있다(Hollingsworth 1997). 우리나라의 경우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영양소 섭취실태(김기남 등 2000), 식행동(유정순·정경자 1995; 한명주 1992; 김정현 등 1998; 노희경 1999; 이경애 1999; 김기남 등 2000) 및 영양상태평가(김기남 등 2000)와 대사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있으나 알코올 음료와 비알코올 음료에 대한 조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음료의 소비 성향을 주도하는 대학생들의 알코올 섭취 실태와 비 알코올성 음료의 기호도를 조사하여 올바른 기호음료 문화를 보급하고, 나아가 영양교육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얻기 위해 실시되었다.

조사대상 및 방법

1. 조사대상 및 기간

조사대상은 전남 여수에 위치한 여수대학교에 재학중인 남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지 1000부를 돌려 남학생 432부, 여학생 155부로 총 587부를 회수하였다. 조사기간은 1997년 5월부터 6월까지 약 2개월 간 실시하였다.

2. 조사내용

설문지 조사법을 이용하여 성별, 나이, 학년별로 알코올성 음료의 주량, 알코올성 음료의 선택빈도, 알코올을 마시기 전, 후에 섭취하는 식품이나 음료의 종류, 비 알코올성 음료의 기호도등 질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대상 학우들의 특성조사로 성별, 연령, 학년별 조사(3문항)

나) 대학생 대부분이 선택하는 알코올성 음료를 총 5가지(맥주, 소주, 양주, 탁주, 과일주) 및 기타로 분류하고 각 알코올성 음료에 대한 주량과 평균 1달동안 각 알코올 음료를 마시는 횟수 조사(2문항)

다) 알코올 음료를 마시기 전, 후에 실제 섭취하게 되는 음식 및 음료조사(2문항)

라) 비 알코올성 음료에 대한 기호도 조사(1문항)

총 8문항의 질문에 대한 대학생들의 알코올 섭취실태와

비 알코올성 음료의 기호도를 조사 분석하였다.

3. 자료 정리

조사 후 수거된 설문지는 각 문항별 빈도와 percentage로 계산하였으며, 성별, 나이, 학년별에 따라 χ^2 test와 유의성 검정은 통계 package(Statistical Analysis System program)를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조사대상

설문조사에 응답한 학생들의 성별, 연령별, 학년별 분포는 Table 1과 같다. 남학생은 432명으로 총 대상자의 73.5%를 나타냈으며, 여학생은 155명으로 응답자의 26.5%로 남학생이 여학생의 약 2.7배 가량 많았다. 연령별로는 20세 이하가 162명으로 총 대상자의 26.7%를 차지하였으며, 21~25세가 389명으로 64.2%, 26~30세가 55명으로 총 대상자의 9.1%로 나타나, 21~25세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20세 이하, 25~30세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를 학년별로 분류하였을 때 1학년은 116명으로 19.8%, 2학년은 248명으로 42.2%, 3학년은 135명으로 23.0%, 4학년은 88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15%를 차지하였다. 2학년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다음으로 3학년, 1학년, 4학년 순이었다.

2. 알코올성 음료의 선호도 조사

Table 2는 성별, 연령별, 학년별에 따른 알코올성 음료의 종류에 따른 선호도를 나타내었다. 남학생의 경우 맥주, 소주, 위스키, 막걸리, 포도주중 소주가 178명으로 가장 선호도가 높았으며, 다음으로 맥주, 막걸리, 위스키, 포도주 순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경우 역시 소주의 선호도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맥주, 막걸리, 포도주, 위스키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술의 선호도를 비교했을 때 남학생들의 경우 소주를 월등히 즐겼으며, 여학생들의 경우 소주

Table 1. Distribution of 587 subjects by sex, age, and academic classification

	Factor	Number	Percent of total(%)
Sex	Male	432	73.52
	Female	155	26.48
	Under 20	162	26.73
Age	21 - 25	389	64.19
	26 - 30	55	9.08
	Freshman	116	19.80
Academic classification	Sophomore	248	42.20
	Junior	135	23.00
	Senior	88	15.00

Table 2. Preference for the selection of alcoholic beverage items in categories by sex, age and academic classification

		Beer	Soju	Whisky	Makkoli	Wine	df	χ^2	P-value
Sex	Male	110	178	43	68	33	4	8.891	0.064
	Female	57	60	9	18	11			
	Under 20	59	66	11	16	10			
Age	21 - 25	139	134	44	52	20	8	8.032	0.430
	26 - 30	16	18	8	8	5			
	Freshman	42	42	11	11	10			
Academic classification	Sophomore	88	89	0	23	13	12	30.193	0.003
	Junior	52	44	17	15	7			
	Senior	33	27	10	11	7			

와 맥주의 비율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으며, 남학생들의 경우 포도주가 가장 낮게 나타난 반면 여학생들의 경우 위스키가 가장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였다.

연령별로 비교했을 때 20세 이하와 26~30세에서는 소주가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21~25세에서는 맥주의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으나, 연령에 따라 소주와 맥주의 비율이 크게 차이가 없어 거의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또한 본 조사대상자의 모든 연령층에서 포도주의 선호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학년별로 보았을 때 1학년, 2학년의 경우 맥주와 소주의 비율이 거의 비슷하였고, 3학년, 4학년의 경우 소주보다 맥주의 선호도가 높은 경향을 나타냈다. 또한 1학년, 3학년, 4학년의 경우 위스키와 막걸리의 선호도가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2학년의 경우 막걸리를 더 선호하였고, 다음으로 포도주로 나타났다. 역시 모든 학년에서 포도주의 선호도가 가장 낮은 경향을 나타냈다. 알코올성 음료의 선호도는 성별, 연령, 학년별과는 관계가 없음을 나타냈다. 외국대 학생들(154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Kidorf 1995)에서 2개월에 걸쳐 음주선호도와 섭취 알코올 종류를 조사한 결과 맥주가 다른 알코올 음료보다 가장 높게 나타났고, 특히 남학생인 경우 음주선호도와 맥주 섭취량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따라서 대학생들의 알코올 기호도는 국가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흥미 있는 조사로 Hoidrup 등(1999)은 덴마크, 코펜하겐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알코올 섭취와 영당이 골절관계를 1964~1992년 사이의 추적조사 결과 일주일에 알코올 섭취량이 낮은 사람들은 영당이 골절상과 관계없으나 일주일에 28병 이상 마시는 사람들은 영당이 골절상의 위험도가 증가되었으며, 또한 알코올 음료의 섭취종류에 따라 달라지는데 맥주를 마시는 사람들이 포도주 또는 위스키나 브랜디를 마시는 사람들보다 영당이 골절상의 위험율이 아주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Smart(1996)는 알코올 종류에 따른 행동적, 사회적 연구를 조사한 결과 맥주에 비해 브랜디를 섭취한 사람들이 더욱 공격적이라고 한 반면 맥주가 포도주보다 더

부정적인 감정상태를 나타낸다고 보고하였으며, 맥주는 특히 젊은 남자들이 더 선호하며, 포도주는 집에서 식사와 같이 즐기며, 맥주와 브랜디는 주로 식당에서 마시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Hansell 등(1999)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알코올성음료와 육체적, 정신적 건강에 관한 연구에서 맥주, 포도주, 위스키 3가지 종류의 음료섭취는 청소년기 초기인 18~21세에 증가한다고 하였으며, 여성보다는 남성이 더 자주 마신다고 하였다. 또한 3가지 알코올 모두 육체적 증상들은 증가하지만 정신적인 고통에서는 변화가 없음을 나타냈으며, 특히 육체적 증상에서 알코올 음료의 종류, 성별 또는 연령과 관련하여 유의적인 상호작용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음을 보고하였다.

3. 알코올성 음료의 섭취빈도 조사

Table 3은 성별, 연령별, 학년별 조사대상학생들의 한달 동안 술을 마시는 회수를 분석한 결과이다. 남학생의 경우 한 달에 4~10회가 168명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3회 이하가 156명, 다음으로 11~20회, 20회 이상이 44명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경우는 3회 이하가 87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4~10회였으며, 11~20회 이상은 별로 답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남학생들에 비해 여학생들은 술을 자주 섭취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Basten(1996)등의 시드니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알코올 섭취량 조사에 의하면 대학교 기숙사 거주 학생들이 학외 거주 학생들에 비해 알코올 섭취량이 많았으며 친구가 많을수록 부모의 직업이 고등직업일수록 알코올 섭취빈도 횟수가 많았다고 하였다. 또한 대학 내 기숙사 거주 여학생들의 경우 알코올 섭취 수준이 졸업과 사회활동에 악영향을 가져올 만큼 위험수준에 있다고 보고하였는데 이는 본 연구조사와 매우 다른 양상을 보였다. 연령별로 보았을 때 모든 연령에서 한 달에 3회 이하를 가장 많이 답하였으며, 다음으로 4~10회로 답하였으며, 20세 이하와 26~30세에서는 11~20회 이상이 낮게 나타났으나, 21~25세에서는 11~20회

Table 3. Frequency for the selection of alcoholic beverage items in categories by sex, age, and academic classification

	BEER				SOJU				WHISKY				MAKKOLI				WINE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Sex																					
Male	2.25	12.36	7.42	4.72	19.32	20.22	6.07	3.15	3.60	2.02	0.22	0.90	5.17	3.15	0.67	0.90	5.84	1.35	0.22	0.45	
Female	24.66	15.75	2.74	1.37	23.30	17.12	1.37	2.05	1.37	0.68	-	-	4.12	1.37	-	0.68	2.74	-	0.68	-	
Age																					
Under 20	17.33	18.67	6.00	1.33	20.67	15.33	2.67	1.33	3.33	2.00	-	0.67	4.67	2.67	-	-	3.33	-	-	-	
21 - 25	14.46	19.45	4.30	3.44	14.62	11.53	3.96	4.30	4.48	1.03	0.02	0.04	8.09	2.24	0.04	0.08	3.27	2.58	0.04	0.04	
26 - 30	15.09	16.98	4.72	0.94	16.98	16.04	1.89	-	-16.04	-	-	0.94	2.83	1.89	0.94	0.94	2.83	0.94	-	-	
Freshman	16.54	16.54	5.26	2.26	23.31	15.79	1.50	2.26	3.01	2.26	-	0.75	4.51	2.26	-	-	3.76	-	-	-	
Academic classification																					
Sophomore	12.95	18.23	5.28	3.36	16.31	11.51	3.60	2.40	7.19	1.44	0.24	0.48	6.24	4.80	0.24	0.96	3.60	0.72	0.24	0.24	
Junior	10.86	20.36	8.60	20.4	4.98	7.24	3.62	2.26	4.07	0.91	-	0.45	8.60	1.36	0.91	0.45	2.71	0.91	0.91	0.45	
Senior	19.63	22.43	4.67	2.80	13.08	18.70	3.74	0.93	4.67	-	-	-	5.61	-	-	-	2.80	0.93	-	-	

a : below 3 times/month
 c : 11 - 20 times/month
 b : 4 - 10 times/month
 d : 21 times/month

보다 20회 이상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로 볼 때 다른 연령층에 비해 21~25세에서 알코올성 음료의 섭취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86명의 미국 남자대학생과 141명의 여자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알코올섭취에 대한 성별 및 나이와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연구(Gross 1993)에서는 남자대학생이 여자대학생보다 알코올 섭취량이 많았으며, 여자대학생인 경우 법적으로 술을 살 수 없는 나이(21세 이하)일 때가 술을 더 많이 마시며, 나이가 들수록 술을 적게 마셨으나 남자대학생인 경우는 반대로 나이가 들수록 알코올 섭취량이 증가되는 현상을 보였다. 이는 본 실험 결과와 비교 시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경우 여학생들은 대학교에 들어와서야 술을 마시는 것으로 보이며 남학생들에 비해 알코올 섭취가 많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Meilman 등(1997)은 44,433명을 대상으로 "Core Alcohol and Drug Survey" 중의 일주일간의 알코올 섭취 빈도결과와 1994년 10월부터 1996년 6월까지 105명의 미국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일주일간의 음주실태를 분석하여 보고하였는데, 그 결과에 의하면 대학교 2학년 48% 및 4학년 38%가 일주일동안 알코올 음료를 전혀 마시지 않는다고 응답하였고, 한번 마신다고 응답한 학생수까지 합치면 대학생의 50% 이상이 술을 마시지 않으며, 약 10%의 대학생들이 일주일동안 15회 또는 그이상의 횟수로 술을 마신다고 하였다. 본 실험에서도 남녀 대학생들의 약 41%는 알코올 섭취를 전혀 하지 않았으며 약 8.5%의 학생들이 1달에 20회 이상의 술을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알코올성 음료의 주량을 조사한 결과 남학생은 맥주의 경우 1회에 3병 이상 마신다고 답한 사람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소주의 경우 1~2병을 마신다고 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다. 여학생의 경우 맥주는 3병 이상, 소주는 1병정도가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위스키는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1병 이하로 마시는 경향이었고, 막걸리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많이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포도주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주량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술에 대해 1회의 술 자리에서 남학생의 경우 45.2%가 1병을 마신다고 하였고 2병 이상을 마시는 학생도 25% 정도나 되었고, 여학생은 32.6%가 1병, 8.7%가 2~3병을 마신다고 하였으나 그 이상을 마시는 학생은 없었고 40% 이상이 1~2컵 또는 1컵 이하를 마신다고 하였다(이경애 1999). 연령별로는 맥주는 모든 연령에서 3병 이상, 소주는 20세에서 25세까지는 1병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26~30세에서는 1~2병정도가 가장 높았다. 학년별에서도 역시 맥주는 모든 학년에서 3병 이상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소주는 1학년에서는

Table 4. Frequency for the selection of alcoholic beverage in categories by sex, age, and academic classification (times/month)

		Below 3	4-10	11-20	Above 20	df	χ^2	P-value
Sex	Male	156	168	64	44	3	25.543	0.001
	Female	87	54	8	6			
	Under 20	80	63	14	5			
Age	21-25	176	141	33	39	6	11.408	0.077
	26-30	30	19	5	1			
	Freshman	60	43	7	6			
Academic classification	Sophomore	115	91	24	18	9	49.206	0.001
	Junior	42	42	19	32			
	Senior	42	37	7	2			

1~2병, 2, 3, 4학년은 1병 정도가 각각 가장 높게 나타났다. 위스키는 모든 학년에서 1병 정도로 마신다가 가장 높았고, 막걸리는 학년이 높아질수록 주량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알코올성음료의 섭취빈도는 성별, 학년별에 따라 관계가 있었으며, 연령과는 관계가 없었다. 419명의 대학교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알코올 섭취 횟수 및 섭취량과 그들의 자아관과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연구(Bishop 1997)에 의하면 자아에 대한 주체의식 및 자부심이 부족할수록 총 1년 동안의 알코올 섭취량이 많았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가치관과 자신의 관심분야에 대한 학문을 연마해야할 대학생 시절의 음주문화를 보다 바람직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계몽이 요구되어진다.

4. 알코올성 음료 섭취전후 식품 또는 음료섭취조사

술 마시기 전후에 섭취하는 식품 및 음료에 대한 조사결과는 Table 4, 5와 같다. 남학생의 경우 술 마시기 전에 먹는 식품으로 밥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우유, 물, 콜라, 과일안주 순으로 나타났으며, 여학생의 경우 역시 밥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우유, 물, 콜라 순으로 남학생들과 같은 결과를 보였다. 최근 영양소를 첨가하거나 또는 특정 식이가 알코올대사를 촉진 또는 지연시켜 알코올성 질환을 예방한다는 보고가 많이 있다(Sachan & Mynatt 1993; Sachan & Berger 1987; Sacha 1992; Berger & Sachan 1986; Park 등 1994). 즉, 0.8% 밀 글루텐 식이(Sachan & Mynatt 1993)와 0.5% 카르니틴 첨가 식이는 대조군과 비교 시 혈 중 알코올 분해속도와 알코올 탈수소 효소의 활성을 낮추어 알코올대사를 지연시켰으며(Sachan & Berger 1987; Sacha 1992; Berger & Sacha 1986), 아스파라진 첨가 식이는 유의적으로 아세트알데히드 탈수소 효소의 활성을 촉진시켜 생체 내 아세트알데히드를 감소시킴으로써 숙취를 해소시킨다고 하였다(Park 등 1994). 본 연구에 참여한 대학생들의 경우 식사와 함께 술을 마시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사려되며 시중에 시판되는

Table 5. Student numbers for food or beverage intake before drinking alcohol

Food or beverage	Male	Female
Water	49	24
Coke	36	15
Milk	129	44
Soft drink	8	-
Cooked rice	133	63
Fruit accompaniment	24	-
Other	53	9
df	6	
χ^2	21.206	
P-value	0.002	

Table 6. Student numbers for food or beverage intake after drinking alcohol

Food or beverage	Male	Female
Water	189	42
Coke	50	9
Milk	32	20
Soft drink	34	-
Pure cooked rice	60	38
Bean soup	13	9
Fish paste soup	19	-
Dried pollack soup	11	5
Hangover-chaser soup	23	16
Fruit accompaniment	11	16
Other	-	-
df	9	
χ^2	64.942	
P-value	0.001	

숙취와 관련된 식품이나 약품을 섭취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술을 마신 후 섭취하는 식품 및 음료로 남학생의 경우 물이 1위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밥, 콜라, 청량음료, 우유, 해장국 순으로 나타났고, 여학생들의 경우 역시 물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다음으로 밥, 우유, 과일, 해장국 순

Table 7. Student numbers for selection of the itemized non-alcoholic beverages by male and female subjects

Beverage	Male	Female
Regular cola	134	49
Low calorie cola	37	3
Sik hye	23	15
Cinnamon punch	12	1
Apple juice	27	13
Pear juice	90	46
Date tea	58	6
Milk	3	1
Coffee	21	8
Cider	3	1
Other	24	12
df	10	
χ^2	28.138	
P-value	0.002	

으로 나타나 남학생들은 술 마신 후 물과 밥을 제외하고 음료수를 많이 섭취하는 경향이었고, 여학생들은 과일을 많이 먹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알코올성 음료 섭취 전후 식품 또는 음료섭취는 성별과 관계가 있었다.

5. 남녀 대학생들의 비 알코올성 음료의 기호도

남녀 대학생들의 비 알코올성 음료의 기호도 조사는 Table 7에 나타내었다. 남학생의 경우 콜라가 단연 1위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배즙, 대추음료, 다이어트 콜라, 사과즙 순으로 나타났으며, 여학생의 경우 역시 콜라가 1위를 나타냈고, 다음으로 배즙, 식혜, 사과즙 순으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결과에서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콜라를 가장 많이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배즙으로 나타났으며, 남학생의 경우 차, 다이어트 콜라, 사과즙 순으로 나타났으며, 여학생의 경우는 식혜, 사과즙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학생 310명을 대상으로 학기중과 기말고사 기간동안 마시는 음료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Khan 1980)에서도 학기 중에는 남녀 대학생 모두 콜라와 우유가 주된 음료였고, 뜨거운 음료는 최저 선호도를 보였으며 특히 시험기간동안에는 단연 콜라가 주된 음료였고, 특히 남학생의 경우 100%가 콜라를 선호하였다. Kim 등(1994)의 음료기호도 조사결과에서도, 우유, 과일주스, 탄산음료, 따뜻한 음료, 찬 음료 및 물 중 대부분의 남학생과 여학생의 경우 탄산음료를 즐겨 마시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25~39세의 경우 17명 정도가 탄산음료를 마시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18~24세의 경우 약 6배 이상이 탄산음료를 즐겨 마시는 것으로 조사되어 젊은이들에게 탄산음료는 계속적으로 인기 있는 음료임을 알 수 있었다. 국민일보 기사(2000, 5.16)에 의하면 탄

산음료시장은 꾸준히 성장추세이며, 주스시장 역시 성장세라고 하였으며, 전통음료인 식혜 및 대추음료는 약세를 보인 반면 최근 등장한 쌀, 보리, 콩, 옥수수 등 곡류음료시장은 활기를 띠고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음료시장은 신제품이 계속 출시하고 있어 해마다 그 추세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요 약

전남 여수에 소재 한 여수대학교에 재학중인 587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지조사법을 이용하여 성별, 나이, 학년별로 그 음주실태, 형태, 방법 및 시판되는 비 알코올성 음료의 기호도를 조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설문조사에 응답한 학생들은 남학생이 73.5%, 여학생이 26.5%로 남학생이 여학생의 약 2.7배가량 많았으며, 연령별로는 21~25세가 월등히 높았고, 다음은 20세, 25~30세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년별로는 2학년이 42.2%, 3학년 23.0%, 1학년 19.8%, 4학년 15%로 조사되었다.

2) 각 성별, 연령별, 학년별 조사 대상 학생들의 알코올 음료 기호도와 주량을 분석한 결과 남녀 학생 모두 맥주나 소주를 주로 마셨고, 맥주가 3병 이상, 소주는 1병정도가 주량의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연령별로는 20세 이하나 21~25세의 경우 대체로 맥주 및 소주를 1병 이상 마시는 경우가 높았으며, 반면 26~30세의 경우는 맥주 및 소주를 마시는 기호도나 주량은 비슷한 양상을 보였으나, 특이한 현상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학년이 높아질수록 맥주 및 소주와 더불어 양주를 섭취하는 비율도 유사하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탁주 및 과일주의 기호도나 주량은 모두 낮은 비율을 보였다.

3) 술 마시기 전, 후에 섭취하는 식품 및 음료에 대한 조사 분석 결과 술 마시기 전은 남녀학생 모두 밥이 월등히 높았으며, 우유가 그 다음 순위를 나타내었다. 술 마신 후의 경우는 남녀 모두 물을 마신다는 대답이 단연 1위였고, 남학생은 밥, 라면, 콜라순위로 답하였으며, 여학생의 경우는 밥, 우유, 과일안주 순으로 나타났다.

4) 남녀 대학생들의 비 알코올성 음료의 기호도를 분석한 결과 콜라가 단연 1위였고, 남학생들은 배즙, 대추음료 순위였으며, 여학생들은 배즙 음료, 오렌지 주스 순으로 나타났다. 우유나 사이다는 비교적 낮은 기호도를 보였다.

참고 문헌

- 강혜수 · 김기남 · 송미남(2000) : 대학생의 식행동과 칼슘 섭취 상태. *한국생활과학회지* 9 : 395-403

- 국민일보. 음료시장 높은 성장률. 2000. 5. 16
- 김정현 · 문수재 · 윤혜준 · 이양자(1998) : 한국 대학생의 편의식품에 대한 인지도, 이용 정도 분석 및 식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13(2) : 227-239
- 노희경(1999) : 남녀 대학생의 음식선택기준과 외식행동.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14(2) : 241-249
- 안숙자(1989) : 서울지역 대학생들의 외식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4(3) : 383-393
- 유정순 · 정경자(1995) : 대학생의 영양교육과 식생활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3(1) : 61-72
- 이경애(1999) : 부산지역 대학생들의 성별과 건강관심도에 따른 건강관리 및 식행동 비교.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28(7) : 732-746
- 전희정 · 전세열 · 심영자(1995) : 식품과 현대인의 건강, pp.191-192, 지구문화사, 서울
- 한명주(1992) : 서울지역 대학생들의 패스트푸드의 외식행동에 관한 실태조사.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7(1) : 91-96
- Basten CJ, Psychol M, Kavanagh DJ(1996) : Alcohol consumption by undergraduate students. *Subst Use Misuse* 31(10) : 1379-1399
- Berger R, Sachan DS(1986) : Elevation of blood ethanol concentrations in carnitine supplemented rats. *Nutr Rep Int* 43(2) : 153-157
- Bishop DI, Macy-Lewis JA, Schneklath CA, Puswella S, Struessel GL(1997) : Ego identity status and reported alcohol consumption ; a study of first-year college students. *J Adolesc* 20(2) : 209-218
- Gross WC(1993) : Gender and age differences in college students' alcohol consumption. *Psychol Rep* 72(1) : 211-216
- Hansell S, White HR, Vali FM(1999) : Specific alcoholic beverage and physical and mental health among adolescents. *J Stud Alcohol* 60(2) : 209-218
- Hollingsworth P(1997) : Marketing beverage. *Food Technology* 51(1) : 44-51
- Hoek JB, Thomas AP, Rooney TA, Higashi K, Burin E(1992) : Ethanol and signal transduction in the liver. *FASEB J* 6(2) : 2386-2396
- Hø idrup S, Grø nbk M, Gottschau A, Lauritzen JB, Schroll M(1999) : Alcohol intake, beverage preference, and risk of hip fracture in men and women. *Am J Epidemi* 149(9) : 993-1001
- Khan MA(1980) : Observation on beverage preferences of college students at specific times. *J Am Diet Assoc* 77(1) : 56-57
- Kidorf M, Sherman MF, Johnson JG, Bigelow GE(1995) : Alcohol expectancies and changes in beer consumption of first-year college students. *Addict Behav* 20(2) : 225-231
- Kim HD, Kim DS, Kim SS(1994) : Milk and beverage preferences of college students. *J Korean Soc Food Nutr* 23(4) : 420-428
- Meilman PW, Presley CA, Cashin JR(1997) : Average weekly alcohol consumption ; drinking percentile for American college students. *J Am Coll Health* 45(5) : 201-204
- Park SC, Han JG, Han JA, Park YC(1994) : Aspartate decreases lipid peroxidation and protein carbonylation in liver of chronic ethanol-fed rats. *Korea J Biochem* 26(2) : 145-149
- Sachan DS(1992) : Carnitine-mediated attenuation of ethanol metabolism. In *Current Concepts in Carnitine Research* Carter AL ed., pp.79-91, CRC, Boca Raton, FL, USA
- Sachan DS, Mynatt RL(1993) : Wheat gluten-based diet retarded ethanol metabolism by altering alcohol dehydrogenase and not carnitine status in adult rats. *J Am College Nutr* 12(2) : 170-175
- Sachan DS, Berger R(1987) : Attenuation of ethanol metabolism by supplementary carnitine in rats. *Alcohol* 4(1) : 31-35
- Smart RG(1996) : Behavioral and social consequences related to the consumption of different beverage types. *J Stud Alcohol* 57(1) : 77-84